

#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 경향 분석

남상준\* · 장혜정\*\* · 나정향\*\*\*

##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Children's-Geographies-Education (CGE) in Korea

Sang-Joon Nam\* · Hye-Jeong Jang\*\* · Jung-Hyang Na\*\*\*

**요약:** 어린이지리교육학은 1990년대에 어린이지리학, 어린이인간학, 학습주의 등이 결합하여 형성된 교육사조이며,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4-2021년에 한국에서 이루어진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발전 과제를 논의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논문검색 포털 및 온라인 도서관 등에서 분석대상 논문 선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석사, 박사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135편을 선정하였다. 이 논문들을 문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분석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논문 편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08년은 증가 경향의 변곡점이었는데, 이는 2007 교육과정 도입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구가 학습자 범주와 수업 범주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두 범주가 어린이지리교육학의 본령이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한국교원대학교와 서울교육대학교가 학위논문 배출의 중심이다. 전자는 어린이의 장소 경험, 후자는 지리수업의 실행연구라는 주제에 특화되어 있다. 넷째, 학술논문은 대부분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에 게재되었다. 이는 동 학회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초등지리교육 분야에의 관심에 기인한다. 다섯째, 두 가지의 연구 흐름이 나타난다. 먼저 초등지리교육의 주제 혹은 쟁점에 대한 접근으로서 어린이의 지리적 인식과 사고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 흐름에 속하는 연구의 사례는 매우 적다. 또 하나의 흐름은 어린이의 지리적 삶 자체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면서 그것이 초등지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는 접근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이 흐름에 속한다. 교육연구 발달단계 모형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는 초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지리교육학은 한국의 초등지리교육 연구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위한 정황이다. 초등지리교육 연구에서 어린이지리교육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공유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어린이지리교육학, 어린이 지리학, 교과의 발달단계

**Abstract:** Children's-geographies-Education (CGE) is an educational trend formed in the 1990s by combining Children's Geographies, child anthropology, and learning-ism. In Korea. Discussions on CGE began in earnest in the early 2000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 of CGE conducted in Korea from 2004-2021. Furthermore,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discuss the development tasks of CGE. First of all, 135 master's, doctorate papers, and academic papers that satisfy the criteria were selected from thesis search portals and online libraries. By analyzing these papers,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were obtained. First, the number of papers produced tended to increase over the entire period. In particular, 2008 was an inflection point for the increasing trend. This is judged to be the influence of the introduction of the 2007 curriculum. Second, research is concentrated in the Learner category

\*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Professor Emeritu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eonamk@naver.com

\*\* 서울탑산초등학교 교사(Teacher, Seoul Topsan Elementary School), jackiedu@naver.com

\*\*\* 서울정목초등학교 교사(Teacher, Seoul Jeongmok Elementary School), jhmusik02@nate.com

and the Class category. This may be because the two categories are the main bodies of CGE. Third,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re the centers of thesis production. The former is specialized in the subject of children's place experience, and the latter is the study of the implementation of geography classes. Fourth, most of the academic papers wer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Education. This is due to the authority of the journal and interest in the field of primary geography education (PGE). Fifth, two research flows appear. First, it is to study children's geographical perception and thinking as an approach to the subject or issue of PGE. Very few research papers belong to this flow. Another flow is research to understand the geographical life of children itself. Furthermore, I would like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it on PGE. Most of the research belongs to this flow. In light of the development model of subject, Korea's CGE is at an early stage. CGE is a direction for the paradigm shift of PGE research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meaning of CGE in PGE research will be widely shared.

**Key words:** Children's-geographies-education (CGE), Children's-geographies, development model of subject

## I. 서론

한국의 초등 지리교육은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꾸준한 연구·실천되어 오고 있다. 어린이지리교육학은 한국의 초등 지리교육이 최근 드러내고 있는 연구·실천의 주요한 양상 중의 하나이다. 교과교육 연구·실천의 경향은 그 교과가 처한 학문 생태계의 상황과 교과교육에 메타적으로 작용하는 교육(과정)철학을 반영한다(남상준, 1999). 어린이지리교육학은 소수로서의 어린이의 목소리와 생활 세계를 존중하고, 어린이 시기를 자기충족적인 것으로 보고자 하며, 교사의 가르침(교수)이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인 배움(학습)에 의해서 교육이 성립된다고 보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교육 철학적 관점의 전환을 바탕으로 한다. 환언하면, 어린이지리교육학은 사회지리학의 한 영역으로서의 어린이지리학(Children's Geographies), 교육인간학의 어린이인간학,<sup>1)</sup> 학습주의로 패러다임적 전환을 한 교육철학<sup>2)</sup> 등에 기반하여 관점이 전환된 초등 지리교육의 새로운 정향(orientation)(양재영, 2006)이다.

관점의 전환 즉 새로운 관점을 채택(Perspective Taking)한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여태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봄으로써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보이지 않았던 성격을 파악하거나, 같은 대상을 다른 빛 아래에 놓고 살핌으로써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윤길복, 2008; Galinsky and Wang, 2005).

지난 약 20여 년간에 걸쳐 초등 지리교육 연구자와 실천가들은 초등 지리교육이라는 연구·실천의 영역을 어린

이지리학, 어린이인간학, 학습주의 등이 결합된 새로운 빛 아래에 놓음으로써 어린이지리교육학이라는 정향을 성립시켰다. 정향은 연구와 실천의 유기적이며 상호구성적인 누적을 통하여 형성되며, 형성된 후에는 연구 실천에 일정한 방향성으로서 기능한다.

어린이지리교육학의 바탕을 이루는 세 가지의 학문의 지향을 종합하면 어린이 시기의 교육은 학습자의 주체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 주체성은 자기정체성 함양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또한 자기정체성에는 지리적 차원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지리교육학은 어린이의 자아정체성 형성에서 지리적 차원이 가지는 의미를 공유하는 초등교육 연구자들에 의해서 최근 매우 활발히 연구·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린이지리교육학이 전적으로 새로운 관점 혹은 교육 사조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어린이지리교육학은 내외의 상황과 힘에 억압되거나 가볍게 다루어져 오던 '어린이' 차원이 크게 부각되자 드러나고 존중되었을 뿐, 원래부터 초등학생들의 지리인식과 지리 수업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초등 지리교육 연구에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요약한다면, 어린이지리교육학이라는 개념적 용어가 사용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초등 지리교육계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관련 연구가 축적됨으로써 현장의 실천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초등 지리교육의 주요 정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의 형성·발전의

과정 및 경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지리교육학의 연구 경향 분석을 위한 분석 범주를 설정하고, 연구물의 연도별, 범주별, 학위수여 기관별, 게재학술지별, 연구집단별 연구 경향을 분석하여, 주요 연구들을 중심으로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분석의 결과가 향후 한국의 초등 지리교육의 발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 II.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 형성의 배경과 과정

한국에서의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실천은 그 용어의 명시적인 사용을 기점으로 한다면 20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 개념이어서 어떠한 학문적, 교육적 관점과 사조가 그 흐름을 구성하였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전되어 왔는가를 파악하는 데 용이한 편이다. 또한 초등지리교육계라는 규모와 구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동질적인 연구·실천 집단에서 채택, 활용되었기 때문에 그 흐름의 줄기가 잘 드러나 있는 편이다.

2장에서는 어린이지리교육학의 개념 및 한국에서의 어린이지리교육학 형성의 배경과 과정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기술한 논문들의 본문 내용을 확인하고, 참고문헌 목록을 활용하여 어린이지리교육학 개념의 사용과 확산을 파악하였다. 또한 초기부터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에 참여한 교수 연구자와 교사 연구자의 비형식적인 회고를 활용하였다.

‘어린이’는 초등 지리교육 연구·실천의 초기부터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다. 지리 심리와 지리 수업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예를 들어 도해력(graphicacy), 지리 개념 등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지적 발달과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 학습, 지형과 기후, 도시와 인구 및 산업 등에 대한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지리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기왕의 노력들이 전형적이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 어린이를 ‘주체’로 보는 교육 사조를 배경으로 형성된 어린이지리교육학은 지리교육의 연구·실천이 ‘교수보다 ‘학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적 전환의 결과와 관련된다.

교육은 본래 전향적(Foward Mapping)이지만, 후향적

관점(Backward Mapping)과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남상준, 2004). 전향적 관점은 교육 당국·교육자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선정·조직하여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교수한 뒤, 교육당국·교육자의 의도가 얼마나 잘 실현되었는가를 기준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판별하는 교육의 관점을 뜻한다. 이에 비하여 후향적 관점은 학습자의 요구와 관심을 파악하고 이를 교육내용화하여 교수·학습한 뒤, 학습자의 요구와 관심이 얼마나 잘 구현되었는가를 기준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판별하는 입장을 말한다(박경효, 1993; Dyer, 1999; Elmore, 1979).

그동안의 (교과)교육은 전향적 관점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었다. 이는 가르치면 배울 것이라는 교수주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교육의 본질에 관한 논쟁에서 교수주의가 이니셔티브를 잡아 오고 있었지만, 근래 학습주의에 의해서 크게 도전받고 있는 형국이라는 점은 기술한 바 있다. 이렇게 전향적 관점-교수주의가 득세해오던 교과 교육 연구·실천에 후향적 관점-학습주의가 강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과(지리)교육에서의 전향적, 후향적 관점이라는 용어는 남상준(2004)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이후 이 개념은 그가 연구·개발 책임을 맡았던 2007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초등 사회과 교과서 개발에서 중요한 이론적 배경의 하나로 채택되었으며, 교사용 지도서의 총론에 상세히 서술됨으로써 초등 사회과(지리)교육 현장에 공유되었다. 이 용어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통하여 초등 지리교육 연구·실천의 주제로 자리잡았다.

어린이인간학적 논의는 어린이지리교육학 조류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성분을 제공하였다. 국내의 어린이인간학적 논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와다 슈우지의 번역서(박선영·노명희 공역, 1997)와 랑에펠트에 대한 연구(김창환, 1996; 권동택, 1998)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랑에펠트의 어린이인간학에 대한 김창환과 권동택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인간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교육인간학과 다르다.

첫째, 어린이는 발달적 존재이다. 어린이가 신체적, 도덕적인 측면에서 어른으로 발달하는 과정은 발전적 증축 과정이다. 따라서 어른이 되더라도 어린이성이 남아있게

된다. 둘째, 어린이의 신체는 정신 못지않은 존재론적 중요성을 가진다. 어린이들은 신체의 지각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신체를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며,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셋째, 어린이는 극복되어야 할 미성숙한 단계의 존재가 아니다. 어린이 시기는 그 자체가 목적인 의미를 가진다. 성인기로 가기 위한 수단적, 절차적 가치를 가지는 시기가 아닌 것이다. 넷째, 어린이 인간학은 어린이 개개인의 실존적 세계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의 어린이들의 발달과 개체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비하여 기존의 아동심리학은 어린이를, 법칙을 추구하기 위한 아동심리학이라는 경험과학의 연구 대상으로 여겨왔다.

이렇게 신체성을 중심으로 하여 어린이의 실존적 삶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어린이인간학의 기본 관점은 거의 그대로 어린이지리교육학의 교육 사조적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지리학은 어린이지리교육학의 출발점이다. 박승규의 연구(2004) 이전부터 지리적 행위자로서의 어린이들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대체로 성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가는 지리적 삶에 부차적, 종속적 존재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어린이지리학<sup>4)</sup>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연구의 흐름이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나타난 것이다.

어린이지리학은 공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장소를 창출해내는 어린이들을 지리적 삶의 주체로 여긴다. 어린이지리학에서는 학자들, 성인들이 이미 수립해놓은 ‘단일한 지리학으로 지표의 사물과 현상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먼저 일상생활 속에서 어린이들 각자가 만들어 가고 있는 지리학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어린이들을 지리적 삶의 주체로 인정한다. 어린이지리학은 학자, 성인들에 의해서 소외되어 있는 소수로서의 어린이들을 소박한 이론가(Naive Theorist)로 받아들이는 사회지리학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지리학의 한 갈래인 어린이지리학과 본고의 어린이지리교육학은 개념적으로 다르다. 어린이지리교육학은 어린이지리학, 어린이인간학, 학습주의 등을 바탕으로 한 초등지리교육의 새로운 경향을 말한다. 어린이지리교육학이라는 용어는 본고에서 국내 최초로 사용한 것이며, 여태까지는 어린이지리학 또는 어린이지리학에 기반한

지리교육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왔다. 어린이지리교육학에 대한 초기 논의의 대표적인 연구는 박승규(2004), 장혜정(2007), 김일두(2015) 등이 있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한국의 어린이지리학 연구는 사실상 지리학의 한 분야로서 연구되었다기보다는 어린이지리교육학의 기초 연구적 성격으로서, 대체로 지리교육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후술할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어린이지리학과 어린이지리교육학이 통합적으로 연구되어 온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한다면,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은 대체로 1990년 이후 국내에서 공유되기 시작했던 어린이인간학과 후향적 관점-학습주의라는 교육 사조가 2000년대 초 소개된 어린이지리학의 개념과 결합하여 상호구성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분석 대상 및 분석 기준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어린이지리교육학 관련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 학술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박승규(2004)의 “어린이 지리학의 초등 지리교육적 의미”라는 학술논문을 기점으로 이후의 논문들 중에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에서 어린이의 인식, 지각, 활동 등이 중심이 되는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위논문은 전국 10개 교육대학교 및 국·사립 초등교육과(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산출된 어린이지리교육학 관련 석사, 박사학위 논문을 조사하였다. 학술논문은 사회과교육과 지리교육에 관한 학술지 중 사회과교육(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연구(한국사회과교육학회), 사회과수업연구(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초등사회과교육(한국초등사회과교육학회) 등 등재(후보) 학술지 5종을 포함하여 6종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진 3인은 해당 대학교 도서관과 학술지 홈페이지 및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2004-2021년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목록을 전체 검색하였다. 학위논문의 경우 초등 지

리, 어린이 지리, 초등 사회, 어린이 장소, 초등 장소, 장소 감 등의 단어로 논문의 제목, 키워드, 내용에 대한 상세검색을 병행함으로써 분석 대상 논문의 누락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진은 대학교 도서관, 국회도서관, 학술지 홈페이지와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등을 여러 번 교차 검색하여 논문의 중복, 논문 제목 등록 오류 등으로 분석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후 1차 분석 대상 논문 목록을 작성하고 연구진이 합의한 선정 및 배제 기준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때, 지리교육 관련 범교과주제(환경교육 및 생태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저출산·고령화대비교육, 인구교육, 다문화교육 등)와 교과서·지역화 교재의 단순 분석, 교육과정 개발 원리, 국제 비교, 교사 주도의 수업 구성과 실천에 대한 논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sup>5)</sup> 연구진은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의 제목과 국문 초록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단, 선정 및 범주 구분이 어려울 경우 연구 목적, 연구 질문, 논문의 목차와 본문 내용을 3인의 연구진이 검토하여 합의되는 의견에 따랐다. 열람이 어려운 연구논문은 온라인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서지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분석 대상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석·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학위논문과 별개의 연구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진은 2021년 11월에 분석 대상 목록 작성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2022년 1월까지 총 12회, 1회 평균 1-1.5시간의 비대면 회의를 통하여 분석 대상 논문 목록을 수정·보완하였다.

## 2. 분석틀 및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에 대한 내용분석의 실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석의 범주(category of analysis)를 설정하는 일이다(남상준, 1999).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범주를 바탕으로 분석할 것인지 연구의 분석틀을 정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먼저 국내의 지리교육 연구 경향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동안 지리교육 전반이나 초등 지리교육 연구의 경향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 경향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초등)지리교육의 연구 경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설정한 분석 범주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분석 범주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초·중등 지리교육 전반의 연구 경향에 대해 분석한 유홍식(1988), 서태열(1994), 남상준(1996), 서태열(2002), 심광택(2015)과 초등지리교육의 연구 경향을 분석한 남상준(2014)의 분석 범주(연구 영역)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선행 연구들이 설정한 총론,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 일반적인 지리교육의 연구 영역 분류를 참고하면서, 어린이지리교육학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습자 영역을 추가하여 잠정적인 분석 범주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잠정적 분석 범주를 이용하여 총 135편의 논문을 분류하였다. 1차 분류 결과 많은 논문이 수업 범주와 학습자 범주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하나의 범주에 분류된 논문 간에도 성격의 차이가 컸다. 더욱이 분석 범주별로 포함된 논문의 수에 큰 차이가 있어 분석 범주의 등가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연구진은 잠정적인 분석 범주와 그 범주에 분류해 넣은 논문들의 성격을 상호 조정하였으며, 나아가 동일한 분석 범주에 분류한 논문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분석 범주를 재조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설정된 본 연구의 분석 범주는 총론, 내용(내용 선정 및 조직, 교재·교과서), 수업(교수·학습 방법, 수업 설계·적용), 학습자(장소 경험, 공간 인지, 지리 인식, 지리 개념 이해) 등 4개의 상위 범주, 9개의 하위 범주이다.

본 연구는 2004-2021년에 걸쳐 국내에서 산출된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 논문을 연도별, 범주별, 학위 수여기관별, 게재 학술지별, 연구집단별, 산출 논문 편수별 연구자 수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분석 대상을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이다. 즉, 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만 하고 학술논문으로 투고하지 않은 글 중에도 어린이지리교육학적 성격을 지닌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구두발표문을 온라인으로 확보하기 어려워 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엄밀한 양적 분석이나 질적 분석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통상적인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따라서 개별 연구물들에 대한 수량적 분석, 질적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았다.

## IV. 연구 결과

### 1.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의 연도별 연구 경향

초등지리교육 연구는 1970년대에 시작되어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남상준, 2014). 이렇게 초등지리교육이 교과교육학으로 정립되고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지리교육학은 초등지리교육의 재정향에 영향을 주었다. 그 출발점은 2004년이라고 볼 수 있다. 박승규는 2004년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학술지에 어린이지리학의 초등 지리교육적 의미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여 어린이지리학을 소개하고 나아가 어린이지리교육학의 초기적 형태를 시사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비단 지리교육뿐만 아니라 1990년대부터 시작된 어린이인간학에 대한 관심의 증대, 학습자 중심의 교과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의 창립, 학습생태를 존중한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등 교육학계와 교과교육학계 전반에 걸쳐 나타난 변화와 관련된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의 연도별 연구 경향을 보면 표 1과 같다.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학

위논문과 학술논문의 수를 합쳐 총 135편의 논문이 산출되었으며, 2004년 가장 적은 2편에서 2019년 가장 많은 12편까지 관련 논문이 꾸준히 산출되고 있다. 특히 2008년을 변곡점으로 어린이지리교육학 관련 논문의 편수가 상당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2007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에서 후향적 관점과 학습생태를 존중하는 교육 내용의 선정·조직 및 수업 실천이 강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년대 후반에 논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그 수가 다소 줄어들었다. 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학회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연구의 규모도 축소되었으며,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어린이지리교육학 관련 학위논문을 지도하던 일부 교수의 퇴임 등이 미친 영향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2.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 논문의 분석 범주별 연구 경향

어린이지리교육학 논문의 분석 범주별 연구 경향은 표 2와 같다.

분석 범주별 논문의 수를 살펴보면, 어린이에 주목하

표 1.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의 연도별 분포(단위: 편)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학위논문	1	4	4	5	5	6	4	3	3	7	6	6	3	4	5	6	4	3	79
학술논문	1	5	1	1	5	3	4	2	5	2	2	3	2	5	6	6	2	1	56
계	2	9	5	6	10	9	8	5	8	9	8	9	5	9	11	12	6	4	135

표 2.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 논문의 분석 범주별 분포(단위: 편)

분석 범주	총론	내용		수업		학습자				계
	총론	내용 선정·조직	교재·교과서	교수·학습 방법	수업 설계·적용	장소 경험	공간 인지	지리 인식	지리 개념 이해	
학위논문	4	5	5	8	16	19	8	9	5	79
학술논문	16	5	2	4	5	8	9	6	1	56
계	20	10	7	12	21	27	17	15	6	135
		17		33		65				

는 어린이지리교육학의 특성상 학습자 범주로 분류된 연구가 65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수업 범주 33편, 총론 범주 20편, 내용 범주 17편의 순이었다. 학습자 범주에서는 장소 경험 하위 범주가 27편으로 가장 많고 지리 개념 이해 범주가 6편으로 가장 적다. 수업 범주 중 수업 설계·적용 하위 범주가 교수·학습 방법 하위 범주에 비해 많다. 내용 범주의 두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논문의 수는 비슷하다.

학위논문에서는 장소 경험 하위 범주가 19편, 수업 설계·적용 하위 범주가 16편으로 많은데 이는 대다수의 연구자가 초등교사로서 어린이의 인식, 지각,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린이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이를 연구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학술논문은 학위논문에 비해 총론 범주가 16편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는 학술논문의 경우 대학교수, 대학원생, 교사 등 연구자가 다양하고, 이 연구자들이 어린이지리교육학과 관련된 이론적·학문적 논의를 소개하거나 연구 결과 중 일부분을 학회지의 제한된 지면에 압축적으로 게재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6)</sup>

범주별로 주요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론 범주는 어린이지리교육학의 이론적·학문적 배경으로서 어린이지리교육학의 성격 및 본질, 목적·목표, 인간상, 변천 과정과 동향(교육사 및 철학), 국제 비교(외국 사례)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이 범주의 연구들은 어린이가 살아가는 장소와 공간에 주목하고, 어린이의 장소 경험, 장소감, 장소학습 등이 초등지리교육에 주는 함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내용 범주는 교과 내용 선정과 조직, 내용 구성 원리, 실제 교과의 내용을 구체화한 교재·교과서 분석 및 재구성 등과 관련된 범주이다. 이 범주의 연구들은 두 개의 하위 범주로 나뉜다. 내용 선정·조직 하위 범주에 속한 논문은 기존의 교육과정 내용 구성 원리를 비판하며 어린이의 삶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장소 중심 지리교육내용 구성, 탄력적 환경확대법, 종래 지평확대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교재·교과서 하위 범주에 속한 논문들은 교재나 교과서의 텍스트, 삽화 등을 분석하거나 어린이의 지리 관련 개념 인식, 자료 이해 양상 등을 파악함으로써 교재나 교과서 내용에 대

한 학습자 적합성을 다루고 있다.

셋째, 수업 범주는 교실 수업 실천과 관련하여 교수·학습 방법과 수업의 설계·적용과 관련된 범주, 두 개의 하위 범주를 설정하였다. 수업 기법이나 도구의 활용을 강조한 경우는 교수·학습 방법,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나아가 이를 통한 학습자의 변화를 알아본 경우에는 수업 설계·적용으로 구분하였다. 교수·학습 방법 하위 범주는 어린이를 위한 초등지리 수업을 지향하며 다양한 수업 기법이나 도구의 활용을 강조한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아동 도서, 학습만화, 그림책 등을 활용한 지리 수업, 오리엔티어링, 웹,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퍼즐 등을 이용한 지도나 위치학습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수업 설계·적용 하위 범주에는 연구자가 어린이들의 장소 경험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밝히는 연구물이 다수 포함되었다. 장소학습, 지명학습, 마을탐사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지역정체성, 장소정체성, 정주의식, 장소감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하는지 파악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넷째, 학습자 범주는 어린이들의 일상적 삶과 지리를 중시하며 학습자를 우선하는 어린이지리교육학의 성격을 고려하여 설정한 범주이다. 하위 범주 중 장소 경험은 어린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그 주변, 또는 실제 경험해 본 장소에 대한 표상과 인식, 장소 경험 안에서 일상을 바라보는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이 하위 범주에서는 어린이들의 일상 공간이나 비밀 장소의 의미, 장소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멘탈맵이나 생활글에 나타나는 장소감, 어린이들의 장소적 삶의 변천, 이동(모빌리티)과 이주 경험 등이 대표적이다. 공간 인지 하위 범주에는 공간 인지, 위치 인지, 공간 포섭 등 공간에 대한 어린이들의 지각과 인식, 심리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어린이들의 지리적 인식 또는 지리에 대한 인식은 지리 인식이라는 하위 범주로 설정하였다. 이 하위 범주는 세계 지리, 영토, 자연재해 등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 뇌과학에 기반한 어린이들의 지리 인식이나 지리적 사고의 특징, 학습 부진아의 지리 인식 등이 해당된다. 지리 개념 이해 하위 범주는 지리 영역에서의 오개념, 오인지 연구, 지리 정보 분석력 측정, 지리 개념 이해도에 대한 연구 등이 포함된다.

### 3.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 논문의 학위 수여기관별 분포

어린이지리교육학 논문 중 학위 수여기관별 분포를 보면 표 3과 같다.

학위 수여기관별 분석의 대상은 79편의 학위논문이다. 어린이지리교육학 관련 학위논문을 가장 많이 배출한 기관은 한국교원대학교(43편)이다. 그 다음으로 서울교육대학교가 10편, 경인교육대학교와 춘천교육대학교가 각 6편,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가 각 3편, 공주교육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각 2편, 이화여자대학교가 1편의 학위논문을 배출하였다.

어린이지리학이 학계에 소개된 2000년대 초·중반에 여러 학위 수여기관에서 관련 학위논문이 산출되었다는 점은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미 어린이들의 일상생활을 존중하고 어린이들의 경험과 인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고 볼 수 있다. 2005년에 춘천교육대학교에서 배출한 나병천(2005)과 이순금(2005)의 연구는 어린이지리교육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초기의 석사학위논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가장 많은 학위논문을 배출한 한국교원대학교와 2010년대에 들어 수업의 설계와 적용에 대한 실행연구 성격의 논문을 꾸준히 배출한 서울교육대학교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 4.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 논문의 게재 학술지별 분포

어린이지리교육학 논문의 게재 학술지별 분포를 보면 표 4와 같다.

게재 학술지별 분포의 분석 대상 학술 논문은 56편이다. 이 중 40편이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한국지리환경

표 3.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 논문의 학위 수여기관별 분포(단위: 편)

수여 기관	분석 범주 총론	내용		수업		학습자				계
		내용 선정·조직	교재·교과서	교수·학습 방법	수업 설계·적용	장소 경험	공간 인지	지리 인식	지리 개념 이해	
경인교육대학교				1	1	1	2		1	6
공주교육대학교								1	1	2
대구교육대학교					2	1				3
부산교육대학교		1	1		1					3
서울교육대학교					7	2		1		10
서울대학교		1					1			2
이화여자대학교								1		1
청주교육대학교					3					3
춘천교육대학교	1				1	3			1	6
한국교원대학교	3	3	4	7	1	12	5	6	2	43
계	4	10		24		41				79

표 4.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 논문의 게재 학술지별 분포(단위: 편)

발행 기관	분석 범주	내용		수업		학습자				계
	총론	내용 선정·조직	교재·교과서	교수·학습 방법	수업 설계·적용	장소 경험	공간 인지	지리 인식	지리 개념 이해	
한국사회과 교육연구학회	3	1					2	1		7
한국사회교과 교육학회	2				1					3
한국사회과 수업학회						1				1
학습자중심 교과교육학회	1					1				2
한국지리환경 교육학회	9	3	2	3	4	6	7	5	1	40
한국초등사회과 교육학회	1	1		1						3
계	16	7		9			24			56

교육학회)에 게재되었으며, 사회과교육(한국사회과교육 연구학회)에 7편, 사회과교육연구(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와 초등사회과교육(한국초등사회과교육학회)에 각 3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에 2편, 사회과수업연구(한국사회과수업학회)에 1편의 연구물이 발표되었다. 분석 범주별로 보면 학습자 범주 24편, 총론 범주 16편, 수업 범주 9편, 내용 범주 7편의 논문이 게재 되었다.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는 어린이지리교육학 형성 초 기부터 관련 논문을 활발히 게재해왔다. 특히 이 학회지 는 2006년부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가 1년에 2회씩 개 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초등지리교육분과를 독립된 별도 의 분과로 상설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지리교육학 관련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제공하였다.

### 5.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의 흐름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의 흐름은 표 5에서 살 펴볼 수 있는 바와 같다.

2004-202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어린이 지리교육학 연구이지만 분석해보면 몇 가지의 흐름이 드 러난다.

첫째, 박사학위논문은 중심으로 볼 때, 어린이지리교

육학 연구의 흐름은 ‘분화’와 ‘집중’의 흐름을 보여준다. 어린이가 살아가는 실제공간과 가상공간에서의 정체성 형성에 주목한 장혜정(2007)의 연구는 어린이의 장소 경 험을 질적으로 탐색한 연구로서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의 밑거름이 되었다. 장혜정의 총론적 연구 이후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김재일(2007)과 양재영(2013)의 교육 내용의 선정·조직에 관한 연구와 신재철(2013)을 비롯한 그 뒤로 이어지는 어린이의 지리 적 삶에 대한 연구이다.

김재일(2007)의 연구는 지평확대법이 초등학생들의 관 심 및 흥미와 불일치함을 주장하면서 스케일 선호도를 토 대로 한 초등지리 내용구성을 제안하였다. 양재영(2013)의 연구는 지리 개념의 논리적 위계와 학습자의 심리적 위계가 다름을 밝히면서, 초등 지리 교육 내용 구성 시 학습자들의 심리적 위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김재일(2007)과 양재영(2013)의 연구는 초등지리 교육과정의 구성을 전면에 부각하고 있다. 즉, 연구의 시작부터 초등지리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 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의 지리적 인식 과 사고를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신재철(2013)에서 김현주B(2019)까지 이어지는 연구들 은 어린이의 지리적 삶에 대한 이해를 우선으로 하면서

표 5.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의 흐름(단위: 편)

연도 분석 범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총론	1	1		1	2	1	1		1		1	1	2	2	1	1	1		20
내용 선정·조직		2		1	1					1					1				17
교재· 교과서									1		1	2	1	1		1			17
교수·학습 방법				1	2	1			1						1	1		1	33
수업 설계·적용			2	1		1	1	2			1	2		1	1	2	2		33
장소 경험	1	1		1	1			1	1	1	2		1	1	1	2	2		65
공간 인지		1					3		1	1	1			1	2	2		1	65
지리 인식			1			3			1		2			1		1			65
지리 개념 이해			1		1	1				1	1				1				65
계	2	9	5	6	10	9	8	5	8	9	8	9	5	9	11	12	6	4	135

(1 석사학위논문, ① 박사학위논문, 1 학술논문, 단위: 편)

그것이 지리교육에 주는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앞의 흐름과 차별된다. 이 흐름은 하위범주별로 다시 세분된다.

장소 경험 하위 범주에 대한 연구로 신재철(2013)의 ‘행복 지리적 관점에서의 초등사회과 지리교육: 아동의 ‘비밀 장소’를 중심으로’, 김정아(2016)의 ‘어린이의 일상적 모빌리티와 비재현적 지리교육’, 조수진(2018)의 ‘어린이의 장소적 삶의 변천 과정과 특징적 양상 연구’, 이지영(2018)의 ‘모험놀이 중심 초등지리교육활동의 구성과 실천’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연구들은 어린이들의 다양한 장소 경험을 ‘함께 가기’(Go Along) 방법으로 탐색한 뒤 그 결과가 초등지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간 인지 하위 범주에 대한 연구로 김현주A(2013)의 ‘길안내 스케치맵과 구술에서 나타난 학생의 공간 인지 특징 연구’, 손유정(2014)의 ‘어린이의 공간능력에 대한

뇌과학적 이해: ‘위치 인지’를 중심으로’, 김현주B(2019)의 ‘소박한 지리(Naive Geography)의 실제적 양상과 초등지리교육적 함의’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연구들은 주로 실험적 방법으로 어린이들의 공간 인지 양상을 파악하여 이것이 초등지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박사학위논문 중심으로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의 흐름을 보면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분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집중의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즉, 학습자 범주 중 장소 경험(4편), 공간 인지(3편) 등 두 개의 하위 범주에 7편의 박사학위논문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위의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중에서 절대 다수인 6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교원대학교에서 배출된 점은 특기할 만하다.

둘째, 석사학위논문은 전체적으로 모든 범주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또한 대다수의 교육대학교와 초등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논문을 배출하여, 박사학위논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특정 대학교에 연구가 편중된 경향이 덜한 편이다. 그런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서울교육대학교에서는 실행연구를 중심으로 지리수업 설계·적용 하위 범주에서 집중적으로 논문이 산출되었다. 석사학위 논문에서 교실 현장의 수업에 대해 어린이지리교육학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의미있는 연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어떤 범주에 관한 연구가 특정한 기간에 집중되거나, 특정한 시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내용 선정·조직 하위 범주의 경우 분석 대상 10편의 논문 중 8편이 2005-2008년에 집중적으로 산출되었고, 교재·교과서 하위 범주의 경우는 2013년도부터 논문이 발표되었다. 내용 선정·조직 하위 범주는 새 교육과정(2007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교재·교과서 하위 범주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사용되면서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내용 범주에 대한 연구의 흐름은 교육과정의 개정 및 새로운 교과서의 발행 시기와 관련된 현상으로 보인다.

## 6. 기타

앞에서 논의한 주요한 연구 경향 외에 작지만 의미있는 경향 몇 가지를 더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어린이지리교육학 학술논문의 연구자 집단별 분포이다. 표 6을 보면, 교수 연구자의 논문이 39편, 교사 연구자의 논문이 43편이고, 교수와 교사의 공동연구가 26편이다. 2004년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교수 및 교사 연구자들의 어린이지리교육학 관련 학술논문이 꾸준히 산출되고 있는 배경에는 (교육, 교육전문)대학원의 존재가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교육, 교육전문)대학원에서 배출한 다수의 교사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한 후 관련 학회에 단독으로 또는 지도교수와 함께 논문을 게재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자 집단별로 연구의 관심 영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을 보면, 교수 연구자는 어린이지리교육학의 이론적 배경을 다루는 총론 범주에서 단독 연구가 8편을 차지하여 다른 범주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수의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교사 연구자는 학습자 범주의 단독 연구가 8편으로서 가장 많았고, 총론 범주의 단독 연구가 5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동 연구에서는 학습자 범주에 포함된 연구가 14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업 범주의 연구가 6편이었다.

또한,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 논문 편수별 연구자의 분포를 볼 때 연구가 소수의 교수, 교사 집단에 한정되어 있다.

표 8을 보면, 학위논문은 총 79편으로 학위논문 연구

표 6.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 학술논문의 연구자 집단별 분포(단위: 편)

연도 연구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교수	1	3	1	1	2	3	3	2	5	2	1	2	1	3	5	2	1	1	39
교사	0	4	0	0	4	2	2	1	4	2	1	3	1	5	5	6	2	1	43
공동	0	2	0	0	1	2	1	1	4	2	0	2	0	3	4	2	1	1	26
계	1	5	1	1	5	3	4	2	5	2	2	3	2	5	6	6	2	1	56

표 7.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 학술논문의 연구자 집단별-연구 범주별 분포(단위: 편)

분석 범주 연구자	총론	내용		수업		학습자				계
	총론	내용 선정·조직	교재·교과 서	교수·학습 방법	수업 설계·적용	장소 경험	공간 인지	지리 인식	지리 개념 이해	
교수	11	3	1	4	4	4	7	5	0	39
교사	8	4	2	2	5	8	7	6	1	43
공동	3	2	1	2	4	4	5	5	0	26
계	16	5	2	4	5	8	9	6	1	56

표 8.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 논문 편수별 연구자 수

연구물 수(편)	1	2	3	4	5	17	계
연구자 수(명)	62	22	4	4	2	1	95
비율(%)	65.3	23.2	4.2	4.2	2.1	1.0	100

자가 79명, 학술논문은 총 56편으로서 교수 연구자 39명 교사 연구자가 43명이고 중복되는 연구자 수를 제외하면 전체 연구자 수는 95명이다.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의 전체 연구자 명단을 정리하여 산출한 논문 편수별 연구자 수를 알아보았다. 연구자별 논문 편수는 1편에서 17편까지 분포하였다. 논문의 수가 1편인 연구자는 62명(65.3%), 2편인 연구자는 22명(23.2%), 3편인 연구자는 4명(4.2%)이었다. 산출 논문 편수가 4편인 연구자는 4명(4.2%), 5편인 연구자는 2명(2.1%)이었다. 가장 많은 17편의 연구물을 게재한 연구자는 1명(1.0%)이었다. 이러한 분포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1-2편의 논문을 산출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교수, 교사 연구자들이 여러 편의 어린이지리교육학 논문을 산출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교수 연구자들 중 남상준(17편)은 다수의 석·박사학위논문을 지도하면서 공동연구의 형태로 어린이지리교육학 학술논문을 산출하였다. 박승규(4편)는 어린이지리교육학 관련 연구로 최초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초기에 두 명의 교사 연구자들의 석사학위논문 지도를 통해 어린이지리교육학 논문을 산출하였다. 이경한(4편)과 송연근(3편)도 단독연구와 공동연구의 형태로 어린이지리교육학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 위에 언급된 교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초등지리교육 영역의 교수 연구자들이 어린이지리교육학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오고 있으나 (교육, 교육전문)대학원의 여건이 어린이지리교육학의 연구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교사연구자들 중에서도 특정 범주에 속하는 주제 혹은 특정한 연구 방법으로 어린이지리교육학 논문을 집중적으로 산출한 경우가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손유정은 석·박사학위논문과 학술논문에서, 뇌과학적 관점으로 지리교육의 기본 개념인 '장소'와 '위치'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을 실험적 방법으로 알아본 일련의 연구물을 발표하였다. 조수진은 어린이들의 삶의 세계로서의 장소에 집중

해서 석·박사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등 5편을 발표하였다. 김현주B는 소박한 지리라는 관점에서 어린이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5편의 석·박사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산출하였다. 이 외에, 김정아(4편), 김재일(3편), 이지영(3편), 정혜정(3편) 등 어린이지리교육학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교사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 V. 논의 및 결론: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의 경향과 발전 과제

다음에서는 앞의 4장에서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경향을 파악하고 발전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 135편 중에서 어린이지리교육학의 이론을 심층적으로 탐색한 논문은 박승규(2004)를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외의 일부 연구들에서 어린이지리교육학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해당 논문의 주된 내용인 실천적 양상의 해석을 위해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서양의 사조를 소개·도입하거나 이를 한국의 초등 지리교육에서 실천하기 위한 변안·적용의 결과를 종합한 새로운 일반화의 추구에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다.

교과(영역)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기초연구, 적용연구, 평가연구로 구분되며, 교과(영역) 형성기에는 학습자의 인식 등에 대한 기초연구, 초기에 제시된 원리와 모형 등을 수업에서 실천하고 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하는 적용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후 연구와 실천이 축적되면 평가연구를 통하여 초기에 도입된 이론과 모형이 현장적합성, 교과교육적 타당성을 지녔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고려할 때 기초연구와 적용연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은 이제 평가연구로서 어린이지리교육학의 개념, 이론, 모형들을 재정향(Reorientation)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가 위치한 단계를 살펴보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중의 하나는 교과(영역)학 연구의 발전에 대한 논의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한 교과학의 진화단계(Layton, 1972)는 초기단계-중간단계-최종단계의 순서를 따른다. 초기단계에는 해당 교과 연구자들이 산발적 개인들이지만, 중간단계에는 나름의 조직을 가진 연구자들의 단체가 출현하게 되며, 최종단계에서는 이 조직이 전문성을 지니게 된다.

실제로 한국 어린이지리교육학의 산출논문 편수별 연구자 비율을 보면, 1편이 65.3%를 차지하며, 23.2%를 차지하는 2편 산출 연구자를 합하면 거의 90%에 달하는 연구자들이 1-2편의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물을 산출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중에서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공동 투고한 교수 연구자들을 제외한다면 교사 연구자들 중 2편 이상의 논문을 산출한 경우는 분석 대상 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임을 고려하더라도, 극소수일 뿐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자들이 조직한 단체가 없고 개개인들이 산발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단체의 유무는 해당 교과(영역)학 연구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연구 단체의 존재와 연구물의 편수의 증가가 상승적인 것만은 틀림없다. 한국 어린이지리교육학 논문 편수가 연구 대상 기간 동안에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지 못한 점은 연구 단체가 없었던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 오히려 논문 편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많은 편수의 논문을 산출하던 지도교수의 퇴직에 연유한다는 점에서 한국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계의 취약한 구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Williams의 지리교육 연구 풍토의 단계(Williams, 1998; Lidston and Williams, 2006에서 재인용)도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가 초창기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의 지리교육 연구 풍토 단계는 초창기(Incipient Stage), 중간기(Intermediate Stage), 성숙기(Mature Stage)로 구분된다.

이 단계에 따른다면,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 풍토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은 대부분의 기준에서 초창기에 해당한다. 즉, 그때 그때의 즉시적이고 현실적인 쟁점

들에 대하여, 특별한 훈련을 받은 연구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초등)지리교육계 내부에서 소수에 해당하는 연구자들이, 고립적인 개인으로서 연구하느라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 지리교육은 지리교육계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다. 초창기에 처한 어린이지리교육학은 이 초등 지리교육에서조차 비주류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과(영역)학 연구 단계의 초기에 처해 있는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을 체계화하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의 노력이 함께 경주되어야 한다.

우선, 기술한 바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 단체가 조직되어 특히 어린이지리교육학의 구조와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어린이지리교육학이 하나의 교과(영역)학으로서 출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이 연구 단체는 기존의 학회와 같은 조직이기보다는 어린이지리교육학의 성격을 고려하여 교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실천에 의하여 견인되는 이론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자들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를 제외한 여타의 관련 학회지에도 논문을 투고함으로써 사회과 내의 다른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지리교육학과 맥락을 같이 하는 교과(영역)학 연구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보조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의 핵심적인 토론의 장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에서는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와 실천을 학술대회의 기획 주제로 삼아 회원들에게 최근 초등 지리교육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있음과 아울러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집필, 수업 실천 등에서 어린이지리교육학이 일관되게 추구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에 앞장서주기를 고대한다.

어린이지리교육학 논문의 학위 수여기관별 분포를 보면 한국교원대학교와 서울교육대학교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는 위 두 대학교의 (교육, 교육전문)대학원의 재학생 수가 타 대학교에 비하여 많은 점과도 관련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지리교육학 연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진 교수 연구자들의 개별적인 노력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교재·교과서, 교수·학습 방법, 수업·설계 적용, 지리 인식, 지리 개념 이해 등 5개의 하위 범주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이 1편도 산출되지 않고, 장소 경험 하위 범주에서만 7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산출된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하나의 교과는 외부와 내부의 조건을 조화시켜 능동적으로 최적의 생존 조건을 만들어 나아가는 생태학적 존재이다.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은 특히 내생적 요구가 선행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외부의 조건을 동원(mobilize)하여 형성되었다. 따라서 어린이지리교육학은 한국의 교육사에서 가장 강한 외부적 힘에 의하여 하향적으로 요구되었던 탐구 수업, 열린 교육 등과는 달리, 자생적인 힘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진화를 이루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렇게 내부적 요구가 강하게 작용하여 성립된 어린이지리교육학의 연구는 교과학적 논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주로 현장의 어린이지리교육학에 대한 개념 생태(강두호·남상준, 2014)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일정한 방향과 형태로 수렴되지 못함으로써 실천의 양상이 혼란한 현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수업 실천과 연구를 위한 접근의 다양성이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 교육자와 연구자들 간에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부정형의 양상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지리교육학은 초등지리교육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다. 따라서 초등지리교육 연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사 연구자들이 이 관점을 바탕으로 보다 더 집중적으로 연구와 실천을 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어린이지리교육학의 연구 단계는 초창기에 처해 있다. 어린이의 생활 세계를 존중하는 연구자와 교육자들의 내부적 요구를 바탕으로 어린이를 주제로 보는 학문적·교육적 사조를 결합하여 형성되었으나, 하나의 교과(영역)학적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는 못한 상태이다. 앞으로는 그동안의 연구와 실천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어린이지리교육학의 이론과 실천을 정합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그 성찰을 위한 평가연구의 작은 걸음이기를 기대한다.

## 주

- 1) 국내 초등교육계에서의 교육인간학 및 어린이인간학에 대한 연구의 저서와 논문으로는 김창환(1996) 랑에펠트(M.J.Langeveld)의 어린이 인간학 연구, 박선영·노명희 공역(와다 슈우지 저) (1997) 어린이의 인간학, 권동택(1998) 아동관에 대한 새로운 관점-랑에펠트(M.J.Langeveld)의 “어린이 인간학”을 중심으로, 정혜영(2005) 교육인간학이 대표적이다.
- 2)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니셔티브적 논쟁 중 중요한 것은 교수주의와 학습주의 간의 그것이다. 교수주의가 득세하였던 근대교육까지의 패러다임이 근래 급격하게 학습주의로 전환되고 있다(김신일·박부권, 2005).
- 3) 어린이(children)라는 용어는 원래 서양적 맥락에서는 흔히 청소년기까지를 포함하는 긴 기간을 뜻하지만, 본고에서는 초등학생 시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4) 대표적으로 영국의 G. Valentine은 1990년대부터 어린이지리학에 대한 연구들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Holloway, S. L. and Valentine, G., 2000, *Children's geographies: Playing, Living, Learning*, Routledge, London.과 같은 저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2003년에는 영국에서 Children's geographies라는 학술지가 발행되어 어린이지리학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업적을 전파하고 있다.
- 5) 장인경(2021) 마을책 만들기를 통한 장소감 발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은 본 연구진이 확인해 본 결과, 논문의 소재와 내용은 어린이지리교육학적인 것과 관련이 있지만 교육정책전문대학원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내용면에서 마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어린이지리교육학이 아닌 마을 학교 사업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6) 동일 저자가 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논문의 내용에 따라 다른 범주에 분류된 경우도 있었다.

## 참고문헌

- 강두호·남상준, 2014, “탐구학습에 대한 초등사회과 교사의 개념생태연구”, *교원교육*, 30(3), 265-284.
- 권동택, 1998, “아동관에 대한 새로운 관점-랑에펠트(M.J. Langeveld)의 “어린이 인간학”을 중심으로, 초등교육학 연구”, 6(1), 287-294.
- 김신일·박부권 편저, 2005, *학습사회의 교육학*, 학지사.
- 김일두, 2015, 사적 맥락의 관점에서 본 어린이의 장소감: 어린이 지리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재일, 2007, 초등학교생들의 스케일 선호도에 근거한 지평확대법의 비판적 논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아, 2016, 어린이의 일상적 모빌리티와 비재현적 지리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창환, 1996, “랑에펠트(M.J.Langeveld)의 어린이 인간학 연구”, 교육학연구, 34(1), 47-61.

김현주A, 2013, 길안내 스케치맵과 구술에서 나타난 학생의 공간 인지 특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주B, 2019, ‘소박한 지리(naive geography)’의 실제적 양상과 초등지리교육적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나병천, 2005, 지리교육 공간으로서 교육공간의 의미 재구성,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상준, 1996, “지리교육 반세기의 회고와 전망: 연구업적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1(2), 317-328.

남상준, 1999, 지리교육의 탐구, 교육과학사.

남상준, 2004, “사회과 교육평가 모형의 탐색”, 사회과학교육연구, 7, 131-144.

남상준, 2014, “초등지리교육에 관한 국내의 연구동향 분석”, 사회과학교육연구, 16, 118-134.

박경효, 1993, Richard F. Elmore의 후향식 집행분석론, 오석홍 편, 정책학의 주요이론, 경세원.

박승규, 2004, “어린이 지리학의 초등 지리교육적 의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1), 1-14.

서태열, 1994, “지리교육 연구의 영역 설정을 위한 탐색”, 지리·환경교육, 2(1), 47-60.

서태열, 2002, “지리교육의 발전 과정과 동향”, 「한국의 학술연구」(인문사회과학편 제3집: 인문지리학), 대한민국학술원, 245-290.

손유정, 2014, 어린이의 공간능력에 대한 뇌과학적 이해 ‘위치 인자’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언근·정혜정, 2012, “비조작 자료의 조작을 통한 사회과 비판적 사고력 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1), 1-22.

신재철, 2013, 행복 지리적 관점에서의 초등사회과 지리교육: 아동의 ‘비밀 장소’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광택, 2015, “지리교육의 연구 동향과 연구영역별 성과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3(3), 87-100.

양재영, 2006,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성 관점에 관한 연구: ‘정향’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양재영, 2013, 초등학교생의 지리 개념 인식에 나타난 심리적 위계 ‘기후’ 및 ‘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홍식, 1988, “한국지리교육연구의 발달 -분야별 연구를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19, 112-123.

윤길복, 2008, “상상적·반성적 탐구”에서 은유의 활용,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한, 2008, “초등학생의 세계 포섭관계의 이해도 발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4), 365-376.

이동민, 2017, “한국 초등지리교육 학술연구의 최근 동향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5(2), 1-14.

이상주·이미나, 1981, 교육과정의 적합성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1집), 한국교육개발원.

이순금, 2005, 어린이 공간의 개인적 의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영, 2018, 모험놀이 중심 초등지리교육활동의 구성과 실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혜정, 2007, 어린이의 일상공간과 지리적 자아 형성,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혜영, 2005, 교육인간학, 학지사.

조수진, 2018, 어린이의 장소적 삶의 변천 과정과 특징적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和田修二, 1982, 子どもの人間学(教育学全集22), 第一法規出版, 東京 (박선영·노명희 공역, 1997, 어린이의 인간학: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교육의 방향, 아름다운 세상).

Dyer, C., 1999, Researching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Policy: A backward mapping approach, Comparative Education, 35(1), 45-61.

Elmore, Richard F., 1979, Backward Mapping: Implementation Research and Policy Decision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94(4), 601-616.

Galinsky, A. D., Ku, G., and Wang, C. S., 2005, Perspective-Taking and Self-Other Overlap: Fostering Social Bonds and Facilitating Social Coordinat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8(2), 109-124.

Holloway, S. L. and Valentine, G., 2000, *Children's geographies: Playing, Living, Learning*, Routledge, London.

Layton, D., 1972, Science as general education, *Trends in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Great Britain.  
Lidstone, J. and Williams, M., 2006, Researching Change and  
Changing Research in Geographical Education, Geographical  
Education in a Changing World, 1-16.

접 수 일 : 2022. 10. 27

수 정 일 : 2022. 11. 25

게재확정일 : 2022. 11. 25

※ 분석대상 논문은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 관계상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음.

교신: 장혜정, 07525, 서울 강서구 허준로 109 서울탐산초  
등학교 교사

(jackiedu@naver.com, 02-2659-5101)

Correspondence: Hye-Jeong Jang, jackiedu@naver.com